

4. 수식(首飾)과 쓰개

수식은 부녀의 머리에 꽂는 장식품을 뜻하며 쓰개는 머리에 쓰는 물건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수식을 하기 위하여 어린 여자아이는 종종머리를 땔었고, 처녀들은 땔은 머리를 하였으며 부인들은 낭자를 하였다. 그리고 수식의 대표적인 것은 땡기와 비녀였고 예장에는 머리에 첨지를 꽂은 다음 족두리를 썼다.

쓰개는 모자의 일종인데, 방한용(防寒用) 쓰개로는 굴레, 풍차, 아얌, 조바위 등이 있고 부녀자들이 나들이할 때에 내외(內外)하기 위하여 쓰는 너울이 있었다.

[1] 수식(首飾)

(1) 종종머리·바둑머리

어린 아이의 머리를 조금씩 모숨을 지어 여러 갈래로 땔은 머리를 '바둑머리'라고 하며 이 '바둑머리'가 조금 지난 뒤에 한쪽에 세 총씩 세줄로 땔고 그 끝을 모아 땔아서 땡기를 드리는 어린아이의 머리를 '종종머리'라고 한다.

(2) 땔은 머리

'땔은 머리'는 조선시대 이래 결혼하지 않은 처녀와 총각의 머리 형태이다. 앞이마의 한가운데에서 머리카락을 좌우로 가른 다음 양쪽 귀에서 귀밑머리를 땔아 뒤로 모으고 세가닥으로 나눈 뒤에 서로 엇걸어 땔아 하나로 엮어 늘어뜨린다. 끝에는 땡기를 매었는데 땡기의 빛깔은 처녀는 빨강, 총각은 검정으로 하였다.

(3) 땡기

땡기는 머리를 장식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자줏빛이나 검은빛의 형겼인데 여자들은 붉은색·자주색·검은색으로 땡기를 만들었고 남자는 주로 검은천을 사용했는데 상중(喪中)에는 남녀가 모두 하얀 백색포(白色布)로 땡기를 만들었다.

머리를 땔 때의 땡기 길이는 24~25촌이며 폭은 2~3cm가 보통이었다.

남자가 혼인하거나 20세 성년이 되어 관례(冠禮)를 하면 땡기를 풀어 버리게 되고, 상투를 틀고갓을 쓰게 되는데 이 '땡기풀이'를 한 남자는 친구들에게 '땡기 풀이 톱'을 내는 풍습이 있었다. 그리고 여자가 혼인하거나 계례를 하게 되면 땡기 머리를 틀어 올려 쪽을 찢고 비녀를 꽂는다.

땡기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도투락땡기 : 어린이용 땡기로 긴 사각형의 땡기를 두 폭이 나란히 되도록 반으로 접되, 접힌 위가 세모꼴이 되게 한다. 여기에 조그마한 끈을 달아 머리가 채 자라지 않은 어린이의 뒤통수에 바짝 달아맨다. 이 도투락 땡기는 어린이용보다 크게 만들어 혼례시에 신부의 머리에 큰땡기로 사용하기도 한다.

○ 말뚝땡기 : 머리가 이미 도투락땡기의 시기는 지나고 아직 '제비머리땡기'의 시기가 되지 않은 어린이에게 사용한 땡기인데 긴 직사각형의 땡기를 반으로 겹쳐 접어서 윗부분에 끈을 달아 뒤통수에 달아맨다. 따라서 도투락 땡기와는 달리 반으로 접힌 윗부분이 네모꼴로 되어 있다.

○ 제비부리땡기 : 미혼자의 땔은 머리에 사용하던 땡기인데 처녀들은 빨강, 총각들은 검정을 사용했다. 크기는 연령에 따라 달랐으며 말뚝땡기의 연령이 지난 남녀가 사용했다. 처녀들은 붉은색의 제비 머리땡기에 화려한 금박 무늬를 박아 맵시를 냈다.

○ 큰땡기(뒤핡기) : 궁중이나 양반의 집안에서 신부가 예장(禮裝)할 때에 사용하던 '도투락땡기'를 '큰 땡기'라고 했는데, 짙은 자주빛 비단이나 사(紗)로 만들어 뒤에 크게 늘이기 때문에 '뒤핡기' 또는 '주렴(朱簾)'이라고도 한다. 나비는 10cm 정도로 두갈래로 되었으며 윗 부분은 삼각형으로 붙어 있고 길이는 치마 길이보다 약간 짧다. 전체에 금박을 박아 화려하고 위에는 석웅황(石雄黃)과 옥판을 달고, 밑에는 석웅황이나 밀황(蜜黃)등으로 만든 매미 5마리 정도 달아서 두 갈래진 땡기를 연결하였다.

○ 앞땡기 : 혼례(婚禮)의 예장에서 '큰땡기'와 짝을 이루어 양쪽에 앞으로 늘이는 땡기이다. '큰 비녀'의 양쪽 어깨 위에는 여유분을 적당한 길이로 맞추어 감아 양어깨 위에 드리운다. 나비는 5cm 내외이며 '큰 땡기'와 마찬가지로 금박이 박혀 있으며 끝에는 진주 또는 산호주 장식을 하였다.

(4) 새앙머리 (새앙 남자)

계례전 궁중 소녀의 머리모양을 '새앙머리'라고하는데 머리를 두 가닥으로 갈라서 각각 양쪽에 다리꼭지 두 개를 넣고 두 줄로 머리를 팔아서 내린 다음 밑에서부터 말아올려 머리 밑까지 올라가서 두 개의 쌍상투를 붙이는 양식이다.

새앙머리를 한 어린 궁녀와 상궁(尙宮)을 '새앙각시' 또는 '생각시'라고 불렀다. '새앙머리'는 생각시(상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례하기 전의 왕비나 공주의 경우에도 '생머리'를 했는데 다만 신분에 따라 땡기의 감이나 장식에 차이가 있었고 땡기감은 무늬가 있는 자주색 비단을 사용했다.

민간에서는 새앙머리에다 비녀를 꽂는 '새앙남자'를 하기도 했다.

(5) 비녀

비녀는 부인의 쪽머리가 풀어지지 않도록 꽂는 장신구인데 신분에 따라 패용할 수 있는 비녀의 종류가 각각 따로 정해져 있다.

비녀의 사용은 삼국 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며 다양한 비녀의 발전은 조선 후기 영조(英祖)시대라고 한다.

'가체'의 사치를 금하고 쪽머리를 하도록 국법을 정한 이후부터 비녀의 모양이 다양하게 발전했는데 꾸밈이없는 비녀를 '민비녀'라 하고 매너 머리에 장식이 있는 것을 '꾸민장'이라 했다 비녀의 재료에 따라 금, 은, 백동, 놋진주, 옥, 영락, 비취, 산호, 나무, 대, 뽕, 뽕비녀 등으로 분류하고, 또 비녀 머리 장식의 형태에 따라 봉장(鳳簪), 용장(龍簪), 호도장(胡桃簪), 서복장, 우두장(烏頭簪), 화월장(花月簪), 매죽장(梅竹簪), 산호장(珊瑚簪), 국장(菊簪), 석류장, 각장(刻簪)등이 대표적인 비녀 형태였고, 이밖에도 원앙장(鴛鴦簪), 불두장(佛頭簪), 어두장(魚頭簪), 죽장(竹簪), 화엽장(花葉簪), 가란장(加蘭簪), 목련장(木蓮簪), 모란장(牡丹簪), 초롱장(草籠簪), 두장(豆簪), 민장(珉簪), 말뚝장, 버섯장 등 많은 형태가 있었다.

(6) 남자(쪽)

부인네의 아래 뒤통수에 팔아서 틀어 올려 비녀를 꽂은 머리털을 '남자' 또는 '쪽'이라 하고 한자어로는 복계라고도 한다.

처녀가 계례를 하거나 혼인을 하게 되면 땡기머리를 틀어 올려 쪽을 찌고 비녀를 꽂아 남자 머리를 하게 되어, 여인의 남자는 곧 어른의 표시였다.

(7) 엷은 머리

부녀자의 머리를 팔아서 뒤로 둥글게 틀어엷은 머리인데 이 엷은머리 형태의 두발 모양은 삼국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계속하여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시대 초기에서 중기까지 이 엷은 머리 형태가 점점 커지고 사치가 심해져지자 영조·정조 때에는 엷은머리를 금지하고 '쪽(남자)머리'로 고쳤다.

(8) 첩지머리(땡머리)

예전에 부녀자가 예장(禮裝)할 때 꾸미던 머리 모양의 하나인데, 족두리나 화관 같은 것을 쓸 때에 걸려서 고정시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궁중에서는 평상시에도 사용했으나 사대부의 여인들은 예장을 갖추는 때에 반드시 첩지를 머리에 꽂았다.

왕비는 도금을 한 봉(鳳) 첩지를 사용했고, 내명부(內命婦)·상궁(尙宮) 또는 상류층 외명부(外命婦)들이 사용하는 도금(鍍金)·은(銀)·黑角흑각)등으로 만든 개구리 첩지가 있다.

이 '첩지머리'를 '땡머리'라고도 부른다.

(9) 어여 머리

궁중에서 명절, 탄신일, 또는 평상시 문안 올릴때에 입는 소례복(小禮服: 당의) 차림에는 이 '어여머리'를 하였다. 왕비나 왕녀의경우는 어여머리 위에 '반자'나 '떨장'같은 간단한 수식을 하였고 이 위에 환관 또는 족두리를 쓰기도 했으며 궁녀들은 야청색 공단에 솜을 뒤서 만든 '어임족두리'를 썼다.

따라서 이 어여머리는 궁중에서만 할 수 있는 머리 모양이어서 일반 민가의 부녀자들은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민속은 아니지만 온양온천에 왕실 행차가 가끔 있을 때에는 이 어여머리를 한 왕비나 궁녀들이 함께 수행하기도 했었다.

(10) 족두리

족두리는 옛날 몽고에서 여인들이 외출할 때 쓰던 모자였다고 하며 우리 나라에는 고려 말엽에 들어왔는데 그 모양이 왜소화 되어서 모자라기 보다는 미적(美的) 장식품으로 변모되었다.

족두리가 널리 보급된 것은 조선 영조시대에 여자닉 '엷은머리'를 금지하고 '쪽진머리'로 개혁했기 때문에 족두리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왕비나 세자빈은 칠보 족두리를 썼고, 왕자 부인이나 공주, 왕주는 목단색 공단 족두리에 목단·산호·진주 등을 곁들여 썼으며, 양반가에서는 의식용으로 소례복(小禮服)에 족두리를 사용했다.

우리나라 족두리는 아래가 둥글고 위는 분명하지 않은 6모가 져 있으며 검은 비단으로 만들어 머리에 들어 얹고 비녀를 지르게 되어 있다.

[2] 쓰 개

(1) 굴레

방한(防寒) 또는 장식용으로 머리에 쓰는 모자의 하나인데, 돌이 된 아기로부터 4~5세까지의 어린 아이들에게 남녀 구별없이 씌었다. 남자는 남빛 굴레를 씌우고, 여자는 자주빛 굴레를 씌웠으며, 겨울용은 비단으로 만들고 여름용은 갑사로 만들었다.

굴레 앞부분에다 꽃, 나비 등의 무늬를 수 놓았고 중심에는 밀화(密)와 색실 등을 부착하여 장식 효과를 높였다. 그리고 빛깔이 고운 '색동거리'라는 상의(上衣)를 입혔다.

(2) 풍차(風遮)

토끼·여우·수달·곰 같은 짐승의 모피로 지은 방한용 두건(頭巾)을 풍차라고 한다.

앞은 이마까지 오고, 옆은 귀를 덮게 되어 있으며 뒤로 보면 삼각형이다. 남자용은 이 위에 관이나 갓을 쓰며, 여자용은 여러 가지 장식을 아름답게 하였다.

(3) 아얌

겨울에 부녀자들이 나들이 할 때 추위를 막기 위해 머리에 '아얌'을 썼는데 이마를 덮어 가린다는 뜻을 지닌 '액엄(額掩)'이란 말이 변하여 '아얌'이 되었다고 전한다.

이 아얌은 고운 털로 겉을 싸고 가장자리에 2~3cm의 검은 털로 선을 돌렸으며 뒤에는 긴 드림을 늘어뜨리는데 이것을 '아얌드림'이라 하였다. 땡기와 비슷한 검은 자주빛 아얌드림에는 밀화(蜜花) 또는 금판(金版)으로 만든 매미를 군데군데 달아 장식하였고, 앞 이마와 뒤에는 자주색 또는 검정색 조영(組纓)이나 산호주를 켜 끈이 달려 있고 끝에는 술을 달아 장식하여 드리웠다.

(4) 조바위

남바위를 변형시켜 만든 부녀자의 방한모인데 생김새는 아얌과 비슷하나 제물 볼끼가 커서 귀를 덮었다. 아얌은 귀가 덮이지 않고 뒤에다 긴 드림을 늘어 뜨렸는데 이 조바위는 드림이 없는 대신 귀를 덮어 추운 날씨에도 귀가 시리지 않은 방한 효과를 지니고 있다.

(5) 너울

부녀자들이 나들이할 때에 얼굴을 가리기 위하여 너울을 착용했는데 조선시대에 내외용(內外用) 쓰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조선초기에는 궁중이나 반가(班家)에서만 사용되다가, 조선 중기이후부터 일반인까지 널리 사용되었는데 둥근 샅갓 모양의 원림(圓笠)에다 자루 모양의 천이 어깨를 덮을 정도로 드리워져 있으며 착용할 때 얼굴이 위치하는 부분은 향라 또는 망사 따위를 대어 앞을 투시(透視)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궁중에서는 가례(嘉禮)나 상례(喪禮)때에 왕비 이하 나인(內人)에 이르기까지 너울을 착용했는데 가례에는 주로 나(羅)를 사용했고, 상례에는 생포(生布)나 숙포(熟布)를 사용했으며, 계급이나 신분 따라 천과 빛깔이 달랐다.